



즉시 배포용: 2024년 1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024년 시정연설 첫 제안안의 내용인 소비자 보호 및 적정가격 어젠다 공개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의 소비자 보호법 확대 및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통한 공정성 확보 조치

**1989년 이래 최초로 의료 및 장애 유급 휴가 확대 및 뉴욕주 평균 주간 임금에 혜택 연동
인슐린에 대한 보험료 공동 부담을 없애 전국을 선도하고 2025년에만 뉴욕 주민의 부담
1,400만 달러 경감**

**뉴욕 주민을 의료비 부채로부터 보호하고 병원이 저소득층 환자를 고소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며 재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

회계연도 2024 예산에서 Hochul 주지사가 확보한 최저임금 인상은 새해 첫 날부터 발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4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첫 번째 제안인 대규모 소비자 보호 및 적정가격 어젠다를 공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기업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뉴욕의 소비자법을 개정하고 Buy Now Pay Later 대출 업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 전국을 선도하며 30여년 만에 최초로 유급 병가를 크게 확대하고 특정 보험 상품에서 인슐린에 대한 공동 부담을 없애는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하며 의료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발효 다음 날 이러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4년 시정연설의 첫 번째 제안안은 우리의 소비자 보호 및 적정가격 어젠다입니다. 이는 질병과 장애, 기업의 불공정 관행, 저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뉴욕 주민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급된 재정 혜택을 소비자가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사람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가격 폭리와 약탈적 채무 회수, 기타 기만적인 기업의 관행을 막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뉴욕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수많은 기업을 단속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자를 막는 한편, 새로운 법안을 통해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관행을 멈추어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 사무실과 긴밀히 협력해주신 Hochul 주지사, Comrie 주 상원의원, Weinstein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Hochul 주지사는 198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소비자법을 확대함으로써 뉴욕주 전역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뉴욕 주민은 기업의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기업의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입안하지 못한 여덟 개 주 중의 한 곳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예 따라 뉴욕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무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며 뉴욕주가 악질 행위자를 기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를 확보하게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Buy Now Pay Later 서비스 제공자들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도록하고 뉴욕주 재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해당 업계에 대한 규제를 제안 및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수의 뉴욕 주민들이 전통적인 신용 상품의 저비용 대안으로 Buy Now Pay Later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일상 및 고액 구매 모두에 사용합니다. 해당 법안 및 규제는 공개 의무, 분쟁 해결, 신용 보고 기준, 연체 한도,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 지침 등에 대해 강력한 산업 보호 조치를 설정하여 채무가 쌓이거나 장기 연체가 발생하는 등의 패턴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유급 병가 및 장애 휴가 확대

Hochul 주지사는 35년만에 최초로 유급 병가 및 장애 휴가 상한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 주지사는 장애인법을 개정해 최장 주간 휴가를 향후 5년에 걸쳐 확대하고 이를 Statewide Average Weekly Wage (SAWW)에 연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초 12주의 병가에 대한 유급 가족 휴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간의 조치가 모두 시행되면 대상 근로자들은 평균 주간 임금의 67 퍼센트를 수령하며 상한은 SAWW의 67 퍼센트로 고정됩니다.

임출산 등을 포함한 자신의 의료적 문제로 인해 휴직해야 하는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유급 휴가 혜택은 1989년부터 일주일의 170 달러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병가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여성과 부모를 지원하는 것일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약 20 퍼센트의 뉴욕 주민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장애를 가진 뉴욕 주민들은 장애를 관리하기 위해 종종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술린 공동 부담 철폐

Hochul 주지사는 법안 제안을 통해 인슐린에 대한 공동 부담을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안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관범위한 인슐린 공동 부담 방지 법이 제정되며, 이를 통해 뉴욕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158만 명의 뉴욕 주민이 당뇨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안으로 2025년에만 뉴욕 주민의 비용 약 1,400만 달러를 절감하게 됩니다.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 따르면, 당뇨 환자들의 의료비용은 비만 환자에 비해 2.3배 높으며, 높은 진단율을 보이는 비백인 커뮤니티에서 높은 비용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의료 채무 대응

Hochul 주지사는 뉴욕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법을 개정 및 확대하여 뉴욕 주민을 의료 부채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병원은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400 퍼센트 이하의 소득을 버는 환자(4인 가구의 경우 120,000 달러)에 대해 한정적으로만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어 저소득 뉴욕 주민을 의료비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또한 저소득 뉴욕 주민에 대한 병원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의료 부채에 대한 월 상환액과 이자를 제한하고 재정 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시행해 의료 부채로 인한 뉴욕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킵니다.

뉴욕 주민 700,000명 이상이 의료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의료 채무를 가진 사람들은 필수적인 진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식료품과 난방, 임대료 등 보건에 필수적인 요소를 절약해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채무액이 클 경우 많은 개인과 가족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보건 평등과 기타 보건 관련 상태를 개선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방해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James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결정으로 저소득 뉴욕 주민을 의료 부채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병원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개인의 신용에 의료 관련 채무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의료 관련 채무로부터 합니다.”

뉴욕주 재정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장관인 Adrienne A.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 주민들이 인슐린 등 필수적 진료를 받는 댓가로 극심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임대료 등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필품과 진료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 개인의 건강과 생활, 가족 모두가 영향을 받고 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합니다. 대안도 더 나올 것이 없습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뉴욕 주민들은 Buy Now Pay Later 상품에 의존하게 됩니다. 해당 업계는 주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영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인슐린과 같은 필수 의약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제한하고 Buy Now Pay Later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재정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며,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 아닙니다.”

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위원장인 **Clarissa M. Rodri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 병가에 대한 임금 지급 상한을 67 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뉴욕주 유급 가족 휴가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것 등은 뉴욕 주민들이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면서도 재정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아야 할 때 근로자들이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AARP 뉴욕주 국장인 **Beth Fink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다시 한번 부당한 업계 관행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과도한 개인 채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ARP New York**은 최근 개인의 의료 채무가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한 주지사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처방약 가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령의 뉴욕 주민들은 특히 새로운 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저소득 뉴욕 주민을 의료 채무로부터 보호하는 주지사의 계획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지사가 모든 뉴욕 주민을 기만적이고 약탈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obilization for Justice 경제정의 법무국장 **Carolyn Coff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질 해위자들은 뉴욕의 현행 소비자 보호법의 약점을 활용해 취약한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에게서 이익을 탈취합니다. 보호법이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고 계속 발전하는 시장의 악질적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년 동안 시행된 보호 규제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주정부가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개정을 실시한 40개 곤할구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할 시간입니다. 뉴욕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활동에 가능한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모든 뉴욕 주민, 특히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유의미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뉴욕의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적정가격 어젠다

Hochul 주지사의 소비자 보호 및 적정가격 어젠다에 앞서 그의 행정부는 뉴욕 주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주지사는 작년 가격 폭리와 의료 부채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22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여 라이브 행사 티켓 구매 시 추가 비용을 숨겨서 청구하는 행위를 막고 켈퍼 붓 및 입장권 구매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무료 입장권 판매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며, 전자적으로 배달되거나 집에서 인쇄된 입장권에 대한 배송비 수수료를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뉴욕주를 모든 뉴욕 주민이 더 저렴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회계연도 2024 예산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2027년까지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이를 인플레이션에 반영하는 역사적인 뉴욕의 다개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보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행정 조치(Executive Actions)를 통해 뉴욕주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위기에 대응하고 주거 비용을 낮추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실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십시오. 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